

#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어간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주체80(1991)년 8월 1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의 호상관계, 조국통일의 주제와 민족대단결의 기초,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과 수행방도를 비롯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액을 다시 있고 민족적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위대한 주석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바른 길을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다.

로작이 발표된 후 지난 20년간은 주석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날이었다.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거족적투쟁속에서 민족주체적동일국력량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운동은 주석께서 작성도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경여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 그리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에 부딪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부터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그 리행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지금도 보수패당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극도로 고취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단체와 인사를 물론 《친북좌파》로 몰면서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 또한 《한미관계우선론》을 떠들며 민족의 존엄

과 리익을 외세에 송두리채 섬겨버리고 미국의 핵전쟁책동의 사환군이 되어 분별없이 날뛰면서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특히 모략적인 《천안》호 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사건을 구실로 부남관계를 풍자박산낸 남조선보수패당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데 특대형도발행위까지 감행하는 히스테리적발작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민족은 반동일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때에 가셔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반세기 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

한것은 없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온 민족이 반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압력과 전쟁연습, 무력강화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민족의 단합실현에 민족의 자주가 있고 반전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부중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분별주의세력의 반동일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반동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 방글라데슈정계 인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14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칼레크 자판 부이안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현장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나갈 때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년월은 성취되고야말것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조선적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금강산자주의 남측부동산 정리를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우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설치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자주의 부동산정리를 위해 남측당사자들이 금강산에 들어와 기업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회망에 따라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재산을 임대, 양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로 금강산관광중단이 방지되고있는 조건에서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여 민족의 명산을 내외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남측기업들의 리전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조처에 매우 부성스럽게 대하면서 남측기업들이 재산정리를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것을 고의적으로 가로막았을뿐 아니라 우리의 추궁

과 기업들의 항의에 못이겨 금강산에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30여개 기업가운데 불과 몇몇 기업만 대리고와서는 당국협상만 고집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만나지조차 못하게 하거나 협상탁에 나앉아 마음대로 말도 할수 없게 통제하였다.

이로 하여 금강산재산정리를 위해 협상은 두차례나 시도되었지만 민간기업들과 제대로 소통도 해보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당국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남측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7월 29일까지 다시 시간적여유를 주어 그대 재산정리문제를 최종결착짓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책임을 느낄 대신 《투구법철회》니, 《남북합의위반》이니, 《재산권침해》니 하며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고집하고있을뿐 아니라 당국실무회담을 고집하고나 민간기업들을 배제하고 저들이 재산정리협상과 관광사협의를

아니고 누구만 말인가. 남조선당국이 관광중단의 구실로 내세우고있는 관광객사건으로 말하면 저들 인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우리 군사통제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으로 일어난 불법사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애당초 우리와 약속한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대가도 크게 미달하였다.

이제 남북합의는 더 운운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이미 유명무실한것으로 된지 오래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도 새 특구법에서 현대에 남측관광권을 계속 부여해주고 남측기업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협상기회까지 준것은 최대의 호의를 베풀것이다.

사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지구내 재산정리를 우리 북방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구하여 남측과 동의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

으로 오만하게 나오면서 재산정리사업에 해방을 놓고있는것은 우리의 국제관광사업에 파란시키고 남측관광객에게도 가로막으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이제 그러한 뻔뻔한 잔패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최종시한으로 정한대로 7월 29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있는 남측기업들을 전부 들여보내어 기업 및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가할수 있게 하거나 임대, 양도, 매각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남측당국이 제기한 북남당국실무회담도 고려해볼것이다.

우리는 국제관광과 함께 남측관광객에게도 준비되어 있다.

만일 남측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간기업들을 배제하면서 당국실무회담을 특구법시행과 남측기업들의 재산정리를 방해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당국실무회담은 접수하지 않을것이며 이미 선포한대로 남측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호히 실행할것이다.

##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전쟁수동

얼마전 미국 하와이에서 제43차 남조선미군군수협력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연합훈련, 작전 등의 임무수행시 쌍방사이의 군사지원반안과 전시기원체제발전, 남조선주둔미군의 유통지원체제개선 등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한 전쟁모의판을 벌렸다.

또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따른 그 무슨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양국간 《탄약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방안도 토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호전세력들은 이 연습에서 그 무슨 《금번사태》에 대처한 《북안정화 및 민정인양작전》 훈련을 벌리기로 하고 거기에 《제체통일》을 위한 기구들을 《이북5도청》과 《이북5도위원회》 등을 처음으로 참가시키려 하고있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책동은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더 악화시키기 위한 도적적인 도발행위이다.

최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려는 유관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그것을 하루속히 실현할데 대한 내외여론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그것은 대화가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때문이다.

대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자면 뛰니 뛰니 해도 그 분위기를 세우는것이 급선무이다.

이것은 초보적인 상식이고 대화쌍방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

김철호

지난 13일에 있는 금강산 지구 남측부동산 정리를 위한 북남관계자들의 협상에서 남조선당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오만하게 하면서 부동산정리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해방을 눈짓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도원바와 같이 공화국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설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금강산자주의 부동산정리를 위해 남측당사자들이 금강산에 있는 자기의 기업 및 재산을 재등록하고 회망에 따라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재산을 임대, 양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금강산관광중단이 방지되고있는 현 조건에 비추어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며 남측기업들의 리전도 보장해주려는 송고한 동포애적조치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태도

는 과연 어떠한가. 그들은 공화국의 조치를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면서 금강산지구 부동산정리와 관련한 남측기업들의 금강산길을 가로막았으며 마치 못해 협상탁에 걸려나와서도 관련기업가들이 북의 대표들과 마음대로 만나지도, 말도 할수 없게 통제하였다.

그러고도 이에 대해 책임을 느낄 대신 《투구법철회》니, 《남북합의위반》이니, 《재산권침해》니 튀니 하면서 저들의 부당한 립장을 한사코 고집해나왔다.

이뿐이 아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협상의제와는 무관하게 당국실무회담이관계를 들고나오면서 회담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가고려하고 있다.

북남사이에서 활기있게 진행되어오던 금강산관광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게 된것은 루아침에 중단되게 된것은 그 무슨 《3대조건》이란것을 내걸면서 관광재개를 위한 사업에 제동을 걸고 파탄에 몰아간것도 이 사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

한 리명박보수 《정권》의 고의적인 책동의 결과라는것은 이미 폭로되었다.

현실은 리명박일당의 주적 전도봉음이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남측기업들의 마지막명령까지 끊어버리고 나아가 가서 공화국의 국제관광사업마저 파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문제라면 빗장을 지르고 강건너 불모지 하던 남조선당국이 《민간단체방문》을 《불허》하고 여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독단치기를 한것부터가 잘못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리명박일당의 그러한 부질없는 잔패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남측기업들의 리권을 위한단면협상을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리지성

##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 선포

남조선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 1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100만국민서명운동을 선포하였다.

단체는 리명박 《정부》가 민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레전에산안에 등록금문제와 관련한 예산을 한푼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시키려는 민중의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부터 9월까지 서명운동을 벌릴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국회》가 등록금 관련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관련법률을 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을 뉴욕에 초청

미국이 6자회담의 재개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하였다.

24일 미국무장관 힐러리가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는 김계관 제1부상은 미국관리들과 만나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토의할것이라고 지적되어있다.

본사기자

## 강국의 《통일세》 추진론을 규탄

민주당은 18일 리명박 《정부》의 《통일세》 추진론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대변인은 《현 (정부)는 《통일세》나 《통일채권》을 론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과는 반대방향으로 달리고있다.》, 《《정부》는 《통일세》론의에 앞서 남북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선행조치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무런 정책이나 전략도 제시 못한채 북이 《분피》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벌고있는것이 리명박의 《대북정책》》고있다.》고 분노를 표시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김계관은 삼년가도 황도가 될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명동맹 넘겨온 남조선 《정부》가 이번에는 그 무슨 《대책》을 세우며 법석이지만 그 결과는 《조용한 외교》라는 그 식이 장적인 말공부이다.

친일도 하고 민심도 죽이고 그러면 집권말기 허물어지는 지반도 부지할수 있는것이 그들의 속심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절규했듯이 벼속까지 친일로 물든 이런 《정부》가 있는 일본은 독도강탈야망실현을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친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비행기표 《불매운동》에 대해 남조선 《정부》가 한것은 《유감》이니, 《철회》하라는니 하는 늘 해오던 립장표명이다.

일본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해서는 더욱 비굴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일본 주재 남조선대사 등이 나서서 일본당국에 남조선 《정

부》의 립장이라는것을 전달하였지만 민족의 의사를 반영한 호된 추궁이 아니라 《신변상우려》니, 《호상관계》니 하며 《방문》을 자체해로도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식이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신변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속적인 일본에 《파거를 묻지 않는 미래지향관계》라는 추파를 던지고 일본왕을 《천황》이라 개여올리며 먼저 머리를 숙여왔다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뒤를 따라 《정부》

당국은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이 우리 민족의 존엄을 건드릴 때마다 구태적인 《유감》타령이나 우유연설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철회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독도사명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이 《정부의 굴욕외교, 무기력한 대응이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더욱 부추기

# 전대미문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으로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괴뢰역적패당의 죄악을 고발한다

##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인권연구협회 공동고발장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패당에 의하여 반인권파쇼악법인 《보안법》이 부활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하고있다. 6.15자주통일시대의 거센찬호와 더불어 폐기처분될 운명에 임한 이들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이아

말로 통란할 일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인권연구협회는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보안법》의 범죄적내용과 반인권적성격을 다시한번 내외에 발가놓고 파쇼악법을 휘둘러대며 남조선적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킨 괴뢰패당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공동고발장을 발표한다.

이처럼 《보안법》은 통치배들의 오욕과 리해관계에 저촉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국가변란》, 《국가존립》에 걸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타치는데로 탄압처형할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법률가들은 《보안법》이 애매, 모호하고 추상적일뿐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랑용되는 법아닌 만능의 악법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보안법》은 형벌규제에서도 다른 법률과 높고될 때 매우 가혹한 파쇼악법이다.

남조선 《형법》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죄》에 따르는 형벌을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죄》(3조)에서는 보다 중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모악한 형벌을 들쭉구게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의 《남북교류협력법》(27조)은 당국의 승인없이 북에 가서 물품을 주고 받고나 협력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것을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잡입, 탈출죄》에 걸려 10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있다.

그리고 《보안법》위반자는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으며 감형과 가석방은 꿈조차 꿀수 없다. 이와 같이 《보안법》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인권문제인 통일문제로부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이 유린하는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적인 조항들로 엮여져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남조선에서는 낡은 시대 유물인 《보안법》이 대세의 흐름과 내

외여론의 한결같은 비난배격을 받고 철폐의 도마위에 올랐으나 《한나라당》 보수패당은 그것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특히 리명박패당은 《정권》을 잡은 기회에 파쇼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현행 《보안법》은 《불법리직단체》를 강제해산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들을 《반국가단체》, 《리직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그 관계자들을 보다 가혹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조항들을 개악하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보안법》이야말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독재를 체질적본성으로 하는 반역패당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족적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추악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만 들어내고 개악한 회색의 반인권 악법이라는것을 특특히 보여주고 있다.

### 전대미문의 반인권파쇼악법

4개 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있는 《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서고급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반인권적인 파쇼악법이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분별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인권문 제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악법이다.

반란년의 오랜 세월 한강로에서 한쪽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하며 분열되어 사는것은 최대의 불행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인권문제와 통일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것은 가장 엄청난 인권유린으로 된다. 《보안법》은 바로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통일을 부정하는것을 법률적전제로, 출발점으로 하는 반민족악법이다.

《보안법》의 핵인 동시에 이 악법의 모든 조항을 관통하고 규제하는 2조를 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법률적전제에 따라 《보안법》의 조항마다에는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 련되어있으며 특히 4조 1항 2호 가단에는 북을 가리켜 《적국》이라는 표현까지 명기하였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 시위, 통성도 파쇼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린한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 《불법판동》, 《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실상 리명박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보안법》과 파쇼독재체제를 전면 부활시키고 남조선민들의 인권을 악랄하게 유린해 왔다. 무엇보다도 괴뢰패당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 통일문제로부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이 유린하는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적인 조항들로 엮여져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남조선에서는 낡은 시대 유물인 《보안법》이 대세의 흐름과 내

외여론의 한결같은 비난배격을 받고 철폐의 도마위에 올랐으나 《한나라당》 보수패당은 그것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특히 리명박패당은 《정권》을 잡은 기회에 파쇼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현행 《보안법》은 《불법리직단체》를 강제해산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들을 《반국가단체》, 《리직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그 관계자들을 보다 가혹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조항들을 개악하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보안법》이야말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독재를 체질적본성으로 하는 반역패당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족적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추악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만 들어내고 개악한 회색의 반인권 악법이라는것을 특특히 보여주고 있다.

### 《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실상

《보안법》의 핵인 동시에 이 악법의 모든 조항을 관통하고 규제하는 2조를 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법률적전제에 따라 《보안법》의 조항마다에는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 련되어있으며 특히 4조 1항 2호 가단에는 북을 가리켜 《적국》이라는 표현까지 명기하였다. 결국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은 물론 우리와 관련된 조국과 단체, 그 성원들을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기본대상》, 《주적》으로 규정하고 동족대결을 범죄화, 조문화한것으로서 공화국의 존재 자체와 민족의 화해, 단합, 통일을 애당초 부정한것이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 시위, 통성도 파쇼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린한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 《불법판동》, 《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 시위, 통성도 파쇼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린한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 《불법판동》, 《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 시위, 통성도 파쇼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린한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 《불법판동》, 《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 시위, 통성도 파쇼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린한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 《불법판동》, 《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 시위, 통성도 파쇼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린한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 《불법판동》, 《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 시위, 통성도 파쇼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린한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 《불법판동》, 《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 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독재의 극악한 산물

일반적으로 해당 법의 제정경위와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을 만든 당사자들이나 집단의 정체와 성격을 가늠할수 있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과정 역시 이 전대미문의 악법을 만든 자들의 극악한 속내와 정체를 특특히 알수 있게 한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 《한나라당》의 독재적망동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21일 문평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기어이 체결하려는 《한나라당》의 망동을 규탄하였다. 문평은 이날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8월 립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떠들며 대해 비난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반대 의견을 깹고 기어이 《협정》체결을 강행하겠다는것을 선포한것을 라고 하면서 문평은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이 땅의 경제를 완전한 파란으로 내몰게 될 최악의 골육문서로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본기자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열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적 회합을 위한 주요인적 근거이며 인권적전제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배양하면 《잡입, 탈출죄》(6조), 북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8조), 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권의례를 제공하면 《권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23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3 000여 명의 로조원들의 참가하여 정례회고철회, 로조란양증지를 위한 철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측이 강행물을 내몰아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탄압에 돌아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로동의 기본권리와

정적지자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출수 없다고 하면서 단식투쟁투쟁을 더욱 확대시켜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보건의로 단체연락과 부산경남인도주의 실천인사회의회가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마구 쏘아낸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최루액을 맞은 사람들속에서 피부가 벗겨나 붙어지고 아픔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또 한 얼굴에 최루액을 맞은 많은 사람들은 구토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단체들은 이 최루액은 2009년 쌍룡자동차로조의 파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최루액을 맞은 사람들속에서 피부가 벗겨나 붙어지고 아픔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또 한 얼굴에 최루액을 맞은 많은 사람들은 구토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단체들은 이 최루액은 2009년 쌍룡자동차로조의 파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최루액을 맞은 사람들속에서 피부가 벗겨나 붙어지고 아픔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또 한 얼굴에 최루액을 맞은 많은 사람들은 구토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단체들은 이 최루액은 2009년 쌍룡자동차로조의 파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최루액을 맞은 사람들속에서 피부가 벗겨나 붙어지고 아픔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또 한 얼굴에 최루액을 맞은 많은 사람들은 구토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단체들은 이 최루액은 2009년 쌍룡자동차로조의 파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최루액을 맞은 사람들속에서 피부가 벗겨나 붙어지고 아픔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또 한 얼굴에 최루액을 맞은 많은 사람들은 구토까지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단체들은 이 최루액은 2009년 쌍룡자동차로조의 파



부당한 탄압소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본기자

본기자

# 공화국의 선거제도가 제일이다

지난 7월 24일에 진행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우리 집식구 모두가 찬성투표를 했다.

공화국의 품에서 20여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선거에 여러차례 참가해오지만 매



— 평양시 제87호선거구 제88호분구에서 —

## 제52차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쟁취

공화국의 학생들이 제52차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마다 열리는 국제수학올림픽은 해당 나라의 교육수준과 과학발전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7일부터 23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이번 국제수학올림픽에는 100여개 나라와 지역의 560여명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올림픽에서는 수론, 대수, 기하, 조합부분의 수학문제가 제시되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실력을 쌓아온 공화국의 학생들은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냄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양제1중학교 문학명, 문소민, 홍충성학생들이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또한 평양제1중학교 리영현, 류성철, 동평양제1중학교 김효성학생들은 은메달을 받았다.

지식과 지능을 겨루는 국제무대에서 주체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학생들이 2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신세홍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1부장, 관계부서 일꾼들, 교원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이 마중하였다.

본사기자



## 애국의 열정으로 안아온 탐구의 열매

— 국가과학원 실험생물학연구소에서 —

국가과학원 실험생물학연구소에서 재배된가가 매우 낫고 생산성이 높은 큰단백풀발효막이생산기술을 연구하여 많은 단위들에 도입함으로써 큰 은을 내고 있다.

큰단백풀발효막이란 큰단백풀을 알미기로 발효시켜 만든 막이로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실험생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우수재용으로서 쓰이는 큰단백풀을 집중이나 양어막이로 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착상을 하고 이 문제를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결심에 그에 대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낮에 밤을 이은 탐구열에 이들은 복합미생물의 도움으로 큰단백풀에서 어떤 맛을 제거하고 물속에서도 알미기가 풀리지 않는 절결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할수 있었던 것이다.

복합미생물로 발효처리한 큰단백풀발효막의 단백질 함량이 34%, 지방분이 6%나 들어있는 완전단백질로서 경제효과성이 높아 호평이 대단했다.

물고기와 집짐승먹이의 30~50%를 큰단백풀로 대체할수 있는 막이로 절결할수 있게 되었을뿐 아니라 배양물에 의해 물고기의 사멸률이 2.5배까지 올라가고 증체률도 높여졌다.

큰단백풀발효막이 받아 들인 어떤 단위에서는 한해에 수백t의 배양막이를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생산을 훨씬 늘였다. 별로 품을 들이지 않음에도 물고기와 집짐승먹이 용품을 풍자나 다음없이 얻을수 있게 된 것이다.

물고기와 돼지뿐 아니라 닭, 개사슴이로도 널리 리용되는 큰단백풀발효막이생산기술이 도입되어 오늘 크고작은 양어 및 축산기지를

은 물론 많은 가정들에서도 그 덕을 토포하고 있다.

성공에 자만을 모르는 이곳 연구자들은 정보당 생산성이 대단히 높은 큰단백풀을 소금을 전혀 쓰지 않고 미생물로 생신하게 절결함으로써 겨울철에 절결숙미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큰단백풀발효막이로 부터 접임이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양어와 축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는 미더운 연구자들.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곳 연구자들이 현대화된 돼지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적극 도우려고 하신다는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오늘날 이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과학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뽀름식



왜 그렇지 않나.

공화국은 인민의 진정한 삶의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이며 운명과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이민위천의 나라이다. 공화국정권하에서 모든 공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어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이고있으며 건전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있다. 나도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맛보게 되었고 오늘은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고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내세우고 그들로써 우리의 주권기관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공화국의 선거날은 잔치날과 같고 남조선의 《선거》날은 제사날과 같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나는 다시금 이것을 확인하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진행되는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은 공화국의 인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한다.

재북평화통일축진협의회 회원 정규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24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평양시내 여러 선거장들을 참관하였다.

평양시 제46호선거구 제126호분구, 제57호선거구 제93호분구, 제87호선거구 제88호분구를 비롯한 분구선거장들을 찾은 그들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워서주고 공화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온누리에 빛을 뿌리려 하려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과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열의에 넘쳐있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일본내성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단장 구와하마 세프코



— 남포시 제141호선거구 제63호분구에서 —

##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선거장들을 참관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있는 선거장에서 기쁨에 넘쳐 춤추고 노래부르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일본내성주체사상연구회 대표단 단장 구와하마 세프코

나 선거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네덜란드 미술건축회사 사장 텀 반 데르 비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인민적이다.

조선에서는 전체 선거자들이 인민의 총복들인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고 있다.

오늘 선거장참관을 통하여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나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이다.

영국레이버당 전국정책연단성원 클린 포드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거장을 참관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홍겨운 총판이 벌어진 선거장의 분위기가 감동적이다.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본사기자

## 이역에서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2)

경에하는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정일심동태를 빛내인 학생들이 2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신세홍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1부장, 관계부서 일꾼들, 교원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이 마중하였다.

본사기자

정일심할머니의 집은 수십년동안 쓰고살면서 낡아대려 낡고 가구비품도 변변한 것이 없었지만 돈이 없어 꾸러미 옷을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국에서 집안팎을 세척처럼 꾸러주고 책상과 TV수상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구비품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연을 말하는 할머니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깊은 감동을 안고 방안에 둘러보는 우리의 눈앞에 경애하는 주석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와 함께 한 벽 가득히 걸려있는 기념사진들이 안겨왔다.

정일심할머니와 그의 자식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과 조국에서 형상해준 안동수영용의 초상사진들이었다.

다른쪽 벽에도 여러점의 조선휘화작품들이 걸려있었고 장시작과 책상우에는 크고 작은 진귀한 꽃병들이 놓여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이 주석게서와 장군님께

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 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식들의 집에도 모두 나누어 주어 대를 이어가며 가보로 전하게 하고있다고 말하 는 것이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9차례나 절세위인들을 만나 뵈었다는 정일심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가 조국의 사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었다.

우리가 한창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문이 벌럭 열리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들어서서것이였다. 정일심할머니의 맏사위인 올해 67살 난 최 모 씨였다.

그동안 병치료를 받으라고 오라간만에 장모를 찾아왔다는 맏사위는 들어서서 길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방안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연방 《야!》, 《야!》 하고 감탄하며 방안과 부엌, 배안 등을 한참동안 둘러 본 최 모 씨는 우리의 인사 를 나누며 입을 열었다.

조국에서 장모의 집을 새로 꾸러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훌륭할 줄은 몰랐다고, 자기는 오래동안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집

을 짓고 꾸리는 일을 해서 이만큼 집을 꾸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잘 안다고, 낡아 걸려준 자식들도 걱정만 할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는데 조국에서 이역만리에 사는 장모의 집을 이렇게 새집같이 꾸려주었으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는 오래동안이나 북받치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해하였다.

맏사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던 정일심할머니의 주름진 얼굴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일심할머니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우리의 마을을 달래주듯 조국을 비록 멀리 있어도 우리 주석님 그대로이신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사는 자기는 외롭지 않다고,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말하였다.

장모 건강하여 오래오래 장수하시라는 우리의 작별 인사에 어머니조국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곁에 있어 100살장수는 문제없다고, 이제 인차 또다시 조국에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정일심할머니의 밝게 웃는 얼굴모습이 헤어져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눈앞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박영철



머칠진 저녁이었다.

즐거움 분위기에 저녁식사가 끝나자 우리 가족은 습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있었다.

화면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혁신적 성과들에 대한 보도에 이어 남조선소식이 방영되었다.

남조선의 각지에서 수많은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있는 소식이였다.

《등록금이란게 뭐야? 요즘 우리 동무들속에서 남조선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투쟁이 화제로 되는데 누구도 등록금이 무언지 정확히 아는 동무가 없네라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다니는 막내가 알고싶다는듯 중얼거렸다.

《등록금이라는것은 남조선에서 대학생명단에 등록하는 명목으로 해마다 받아내는 돈이다. 그 말자체도 모르고 아무런 걱정없이 대학에서 매달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는 막내가 대학을 졸업한 너희들은 정말 행운아들이지.》

결에서 그의 말을 듣고있던 아버지가 자식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하는 말이였다.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진 감을 느꼈다.

등록금!

나도 대학시절에는 몰랐었다. 졸업후 기자생활을 하면서야 그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해마다 장마철 홍수처럼 불어나는 1인당 등록금액수가 지금은 남조선돈으로 1 000만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돈이 학교문을 여닫는 사회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액수의 등록금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다.

실사 피라게 번 돈으로 간신히 대학문턱을 넘어서다가도 해마다 늘어만 가는 엄청난 등록금때문에 중도에서 대학을 그만두는 청년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대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들까지 떨쳐일어나 반값등록금실현을 목표로 전지역에 걸쳐 초·중·고·대학, 동맹휴학, 삭발, 단식, 점거농성 등 여러 형태의 투쟁들을 격렬하게 벌이고있는 것이다.

은 가족이 풍돈을 모아 마

련한 등록금으로 대학에 겨우 입학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대신 수업을 거부하고 또 치내대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삭발까지 한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격분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그 가족한 등록금때문에 대학생들이 학업보다도 과외로 동에 시달려다 못해 자기의 모든 희망을 버리고 자살까지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나 돈 한푼 안내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며 걱정없이 공부하고있는 부의 대학생들이 정말 부럽다. 우리도 대학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등록금때문에 잠도 못자고 돈을 벌어야 한다. 오죽하면 등록금때문에 못살겠다고 자살까지 하겠는가.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 등록금없는 최후의 공상에서 걱정없이 마음껏 공부해보고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하느것이였다.

당시에는 법상하게 들었던 그의 하소연이 어찌지 오늘날은 더 크게 내 가슴을 울려주는것만 같았다.

복속에서 북을 모른다는 말

이 있다. 태어나서부터 사랑을 받아온 나의 동생, 그만 이 아닌 우리 시대 청년들이 반인민적교육정책의 산물인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알라. 아마도 그들은 다는 모를 것이다.

오늘의 기쁨과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지는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씨앗이 싹트고 자라 열매를 맺는것도 토양에 따라 다른 법이란다. 지금껏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라난 너희들이 그 혜택에 보답하느니 난 늘 걱정뿐이다.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은혜에 꼭 보답해야 한다.》

아버지의 의미깊은 이 말이 제나름의 생각에 잠겼던 우리들에게 남긴 여운은 컸다.

그날부턴가. 내 마음속에서도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남녘의 학생들이 등록금 파도에 부딪쳐 돈만 아는 사회를 저주하며 살아갈 행복을 걱정할 때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는 한없이 고마운 우리 제도에 대한 보답의 격정이다.

권지혜

## 수필

《등록금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그들이 남긴 유서에는 꽃나이청춘을 속절없이 버려야 하는 억울함과 함께 남녘 땅을 희망보다는 사회로 만든 통치배들과 반인민적인 제도에 대한 분노의 절규가 함축되어있다.

그런데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자는 집권야유 추구를 위해서 《반값등록금》을 비롯하여 민심을 회유하는 여러가지 화려한 《선거공약》들을 람발해놓고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 싶게 입담과 돌아서서 불쌍

주제35(1946)년 7월 30일 평양에서는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인 《북조선녀성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의 이룩하며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로 하여금 사회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언제나 녀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녀성

### 남녀평등권법령

것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실시하도록 하신 것이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모두 9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법령에는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녀성들이 각급 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 남자와 동등한 로동과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 등은 법령의 주요내용들이다.

이 법령은 녀성들을 수세

기에 걸친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준 참다운 민주주의적법령이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그들이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온갖 착취와 억압, 굴욕과 천대를 받고있는 남조선녀성들에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본사기자



만경대물놀이장에서 본사기자 동장편찍음

### 우리 나라 녀의사의 력사

우리 나라 력사에 녀의사가 처음으로 나타난것은 리조조기였다.

남조선비사상이 강하게 지배하였던 당시까지만 해도 녀의사들은 병이나 노인 자의사에게 보기를 꺼려하다 죽는 일들이 자주 있었으므로 1406년 제생원에 처음으로 녀의사제도를 내세웠다고 한다. 제생원은 리조시기 각도로부터 해마다 약재를 실어다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당시 량반 다음가는 중간계층인 중서계급의 녀자들조차 이 일에 종사하는것을 원치 않았기때문에 왕궁소속의 비녀(제집종)와 각도계수관

(지방고을을 관할하는 원)의 녀비중에서 령리한 처녀를 의사로 뽑았다.

제생원에서는 지방에서 선발된 녀의사들에 먼저 《천자문》이나 《효경》을 비롯하여 글을 가르쳐준 다음에 서울로 보내 의술을 익히게 하였다.

1478년 2월에는 왕의 지시나 명령을 작성 및 취급하는 중앙관청인 교문관의 문신 두사람을 교수로 임명하여 진맥, 명약, 침구, 절혈 등을 배워주고 성적이 따라 내의녀, 간병녀, 초학의녀 등 세등급으로 나누었다.

그후 1502년 연산군이 곱게 생긴 녀의사들을 잔치상

에 끌어내어 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녀의사는 친민에 속하는 기생이나 노비계급과 비슷하게 취급되게 되었다.

1510년 이후 녀의사를 연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엄금하였지만 한번 호러졌던 풍기는 좀처럼 시정되지 않았고 관기(관청기생)중에서도 제일품에 속하는 녀의사들은 약방기생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의녀들은 천한 출신이라는 전통적관념에 얽매어 남성의관과 같은 사회적지위를 끝까지 얻지 못하고 천민으로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여왔다.

본사기자

### 마누라

오늘날 중년이상 된 안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마누라》라는 호칭은 리조시기 왕실서부터 녀의사 중중용으로서 양비, 대비(선왕의 안해) 등에게 존칭대명사로 쓰이던 말이다.

리조조명까지 마마와 별차이 없이 함께 사용되어오다가 후기에 마마보다 한단계 낮은 칭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의미가 달라져서 주로 중년나이에 이른 부부사이에서 남편이 안해를 허물없이 부르거나 나이가 지긋한 녀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되었다.

본사기자

### 우리 나라 화장의 력사

우리 나라 화장의 력사는 세나라시기이전에 기원을 두고있다. B.C. 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거울이 1971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미 발달된 화장기술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세나라시기에 연지, 머리기름, 백분 등을 사용하였고 여러가지 장식구로 멋을 뽐으며 692년에는 우리나라의 승려가 일본에 건너가 연분을 만들어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화장품제조기술이 높은 단계

### 만경대물놀이장에서

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연지의 붉은 색은 잡귀가 꺼리는 색이므로 잡귀의 접근을 예방한다고 믿어 이마와 입술, 뺨에 차고 다녔다고 한다. 또한 부인들은 귀밑머리를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내려 댕기로 묶고 비녀를 꽂았다고 한다. 조

### 우리 나라 녀인들은

인제부터 화장하였는가

널리 애용하였다. 신라에서도 화장품제조기술이 발전하였으므로 692년에는 우리나라의 승려가 일본에 건너가 연분을 만들어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화장품제조기술이 높은 단계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연지의 붉은 색은 잡귀가 꺼리는 색이므로 잡귀의 접근을 예방한다고 믿어 이마와 입술, 뺨에 차고 다녔다고 한다. 또한 부인들은 귀밑머리를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내려 댕기로 묶고 비녀를 꽂았다고 한다. 조

### 우리 민족은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아침을 좋아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들에 나갈 때 별을 보지 못하면 흥년이 들어준다고 하면서 새벽에 별을 보며 들에 나갔다가 별을 보며 돌아오곤 하였다.

선조들은 울퉁불퉁 통용어가 박힌 나무로 만든 령목칠이라는 배개를 만들어 리용하였는데 이런 배개를 베고 누우면 머리가 배겨 새벽 일찍 일어날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상체질이라는 배개도 있었는데 그 령력은 다음과 같다. 서리내릴 때 까나온 닭은 몸집이 몹시 작는데 닭이 낳은 알을 다시 서리칠에 깨우면 주먹만한 크기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작은 닭이 된다고 한다.

### 이 서리닭을 판자로 만든

배개속에 넣어 기르면 새벽녘에 어김없이 울어 잠을 깨지 않을수 없게 한다고 한다. 아침 자명종이 없던 시절이라 우리 선조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잠을 깨우는 이리서리닭을 판자로 만든 배개속에 넣어 기르면 새벽녘에 어김없이 울어 잠을 깨지 않을수 없게 한다고 한다. 아침 자명종이 없던 시절이라 우리 선조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잠을 깨우는 이리서리닭을 판자로 만든 배개속에 넣어 기르면 새벽녘에 어김없이 울어 잠을 깨지 않을수 없게 한다고 한다.

### 아침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

런 물리적장치까지 만들어었던 것이다.

녀성들속에서는 간밤의 달이 서쪽하늘에서 사라지기 전에 일어나 그 달이 비친 샘물을 길고 그 물로 하루의 편안을 비는 풍속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이 샘에 비친 달을 길는것을 《봉란을 길는다》고 하였는데 게으른 녀자를 욕할 때 《1년 365일 봉란 한번 길어보지 못한 녀자》라고 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궁궐안에서 왕이 정치하는 곳을 《조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왕이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정사를 보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정사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여 《조사》라 하였으며 정사를 보는 곳을 《조당》이라고 하였으며 정승판서가 조당에 드는것을 《조하》라고 하였다. 재상을 보고는 《조선》, 글을 가르치는것은 《조강》이라 하였으며 아침일찍 열리는 시장은 《조시》라고 했다고 한다.

본사기자

### 녀령의 따르는 인간의 능력

녀령의 인간능력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신적능력인 기억력은 10살에서 23살까지가 절정이고 상상력은 20살 전후에서 30살 전후가 절정이며 창조력은 30살에서 55살까지가 절정이며 사리를 추상하고 종합하는 판단력은 45살부터 70살을 넘어서까지 유지된다고 한다.

육체적 능력은 18살에서 28살까지가 신속성의 절정이고 33살에서 43살까지가 기량의 절정이며 38살에서 48살까지가 근력의 절정, 40살에서 70살까지가 불굴의 절정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 여름철생선의 으뜸인 농어

농어는 예로부터 여름철생선의 으뜸으로 꼽혀왔다. 해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먹이를 찾아 강어귀까지 거슬러올라오는 농어는 이 시기 단번에 쏘고잡고 맛있게 제일 좋은것으로 하여 《7월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 시기 농어에는 비라민 A, B, D, E는 물론 칼슘과 리, 철, 나트륨, 각종 필수아미노산과 오메가지방산들인 EPA, DHA가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살비가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내가 거의 나지 않고 소화도 잘된다. 이로부터 여름철농어는 원기회복과 소화방지, 빈혈예방과 치료에 좋은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본사기자

### 여름철에 감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흔히 머리아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

◆ 여름을 타는 형의 머리아픔

머리위기간에는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우며 식물신경기능이 문란해지기 시작한다. 흔히 식욕이 떨어지고 잠부족을 느끼며 온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몸이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함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기 전에 약을 먹

### 여름철에 감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흔히 머리아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

◆ 여름을 타는 형의 머리아픔

머리위기간에는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우며 식물신경기능이 문란해지기 시작한다. 흔히 식욕이 떨어지고 잠부족을 느끼며 온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몸이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함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기 전에 약을 먹

### 여름철에 감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흔히 머리아픔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

◆ 여름을 타는 형의 머리아픔

머리위기간에는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우며 식물신경기능이 문란해지기 시작한다. 흔히 식욕이 떨어지고 잠부족을 느끼며 온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미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몸이 허약하고 기혈이 부족함이다. 이런 사람들은 여름철이 되기 전에 약을 먹

### 리조시기 호적과 인구수

리조시기의 인구통계는 3년에 한번씩 작성되는 호적(호주에 속한 가족을 등록한 문건)에 기본을 두고있었다. 여기에는 호주(한 집안의 주인)의 이름, 본관(시조가 난 고장), 생년월일, 주소, 직업뿐 아니라 가족관계까지도 포함되어있었다. 호적조사에는 군대에 강제로 동원시킬것을 목적으로 하였기때문에 그것으로 실지 인구수를 계산해내는 어려웠다. 하지만 리조시기에 3년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것으로 인구의 변화추세를 가늠할수 있었다.

리조시기 호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구수는 세종(4대왕, 통치 1419-1450)때 약 650만명, 중종(11대왕, 통치 1506-1544)때 약 1,200만명, 영조(21대왕, 통치 1725-1776)때 약 1,800만명이었다.

본사기자

### 유모아

유모아

유모아

유모아

### 단편실화소설

### 추당섬의 꽃

글 허문길, 그림 김윤일

나에게는 삶의 모퉁이들에서 이러저러하게 짙어진 인생의 채무중 미처 갚지 못한것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제일 무겁게 자리잡고있는것은 리제현선생님의 부탁이다. 그 부탁과 함께 선생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다! 선생님은 우리곶을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은 이 한적한 산기슭이 아니라 우리 제작자의 가슴속에 묻혀있다. 선생님의 녀은 우리 제작자들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우리모두를 통일외의 한길로 떠밀며 살아 빛나고있다.

마침내 겨레의 통일속원, 녀과의 상봉을 그리도 애라게 기다리던 우리 선생님의 평생의 뜻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비껴 북남삼천리

### 추당섬의 꽃

바다의 추당섬으로 향할것이다. 갓가지 꽃에 묻힌 꽃동네, 마을입구로부터 세번째 되는 집...

비록 거기서 선생님은 마중해주시지 못하겠지만 그 때도 좋다. 선생님의 고향사람들에게서 감과 대순나물매 집도 받고있다.

그날을 그려보노라면 나의 심경도 더없이 숙연하면 서도 초초해진다. 나의 머리에 도 세월의 흐름이 남긴 흔적이런듯 흰서리가 오리오

### 추당섬의 꽃

공전이며 우리는 장수의 노한 칼을 뽑아들고 너를 멈춰세우리라

분열된 민족의 비통한 울분을 세상을 향해 뽐내듯 터뜨리던 그 시인도 이제는

이 나라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풍기와 물을 마시며 자라난 이 나라의 씨가 분명하다면 이네들의 꿈과 환을 욕되게 하는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분열의 환을 풀지 못한채 쓰러진 우리의 마음착한 련인들의 이름

그렇게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도 고결한 인성을 짓밟는 민족의 역도들은 이 땅의 족보에서, 아니 지구의 지경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라.

반세기기를 넘어오며 순간순간을 분열의 한, 통일의 희망으로 애간장을 태운 우리의 고결한 련인들을 살아서 만나게 하자!!!

나는 저도모르게 쇠물처럼 끓어오르는 빈애에 잠겨 석양의 빛을 받아 붉은 색조가 어린 대리석비의 글발을 더듬는다.

...  
모주 제작일동  
무심히 읽히지 않는 글발에 눈길을 박은채 나는 자기 가슴에 밀물처럼 차드는 시대적사명감, 모주로서의 의무를 무겁게 느낀다.

진정으로 선생님의 흔적을 지켜주어야 할 모주라면 분분이나 다름은 상봉우에 꽃다발을 드리는것으로 자기

### 추당섬의 꽃

내 스물이 되기 전에 떠나온 고향집을 서른이 넘어서도 들어서지 못한다면 ...  
지구의 수억만년 변함없는

### 추당섬의 꽃

공전이며 우리는 장수의 노한 칼을 뽑아들고 너를 멈춰세우리라

분열된 민족의 비통한 울분을 세상을 향해 뽐내듯 터뜨리던 그 시인도 이제는

이 나라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풍기와 물을 마시며 자라난 이 나라의 씨가 분명하다면 이네들의 꿈과 환을 욕되게 하는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분열의 환을 풀지 못한채 쓰러진 우리의 마음착한 련인들의 이름

그렇게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도 고결한 인성을 짓밟는 민족의 역도들은 이 땅의 족보에서, 아니 지구의 지경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라.

반세기기를 넘어오며 순간순간을 분열의 한, 통일의 희망으로 애간장을 태운 우리의 고결한 련인들을 살아서 만나게 하자!!!

나는 저도모르게 쇠물처럼 끓어오르는 빈애에 잠겨 석양의 빛을 받아 붉은 색조가 어린 대리석비의 글발을 더듬는다.

...  
모주 제작일동  
무심히 읽히지 않는 글발에 눈길을 박은채 나는 자기 가슴에 밀물처럼 차드는 시대적사명감, 모주로서의 의무를 무겁게 느낀다.

진정으로 선생님의 흔적을 지켜주어야 할 모주라면 분분이나 다름은 상봉우에 꽃다발을 드리는것으로 자기

### 추당섬의 꽃

공전이며 우리는 장수의 노한 칼을 뽑아들고 너를 멈춰세우리라

분열된 민족의 비통한 울분을 세상을 향해 뽐내듯 터뜨리던 그 시인도 이제는

이 나라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풍기와 물을 마시며 자라난 이 나라의 씨가 분명하다면 이네들의 꿈과 환을 욕되게 하는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분열의 환을 풀지 못한채 쓰러진 우리의 마음착한 련인들의 이름

그렇게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도 고결한 인성을 짓밟는 민족의 역도들은 이 땅의 족보에서, 아니 지구의 지경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라.

반세기기를 넘어오며 순간순간을 분열의 한, 통일의 희망으로 애간장을 태운 우리의 고결한 련인들을 살아서 만나게 하자!!!

나는 저도모르게 쇠물처럼 끓어오르는 빈애에 잠겨 석양의 빛을 받아 붉은 색조가 어린 대리석비의 글발을 더듬는다.

...  
모주 제작일동  
무심히 읽히지 않는 글발에 눈길을 박은채 나는 자기 가슴에 밀물처럼 차드는 시대적사명감, 모주로서의 의무를 무겁게 느낀다.

진정으로 선생님의 흔적을 지켜주어야 할 모주라면 분분이나 다름은 상봉우에 꽃다발을 드리는것으로 자기

### 추당섬의 꽃

공전이며 우리는 장수의 노한 칼을 뽑아들고 너를 멈춰세우리라

분열된 민족의 비통한 울분을 세상을 향해 뽐내듯 터뜨리던 그 시인도 이제는

이 나라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풍기와 물을 마시며 자라난 이 나라의 씨가 분명하다면 이네들의 꿈과 환을 욕되게 하는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분열의 환을 풀지 못한채 쓰러진 우리의 마음착한 련인들의 이름

그렇게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도 고결한 인성을 짓밟는 민족의 역도들은 이 땅의 족보에서, 아니 지구의 지경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라.

반세기기를 넘어오며 순간순간을 분열의 한, 통일의 희망으로 애간장을 태운 우리의 고결한 련인들을 살아서 만나게 하자!!!

나는 저도모르게 쇠물처럼 끓어오르는 빈애에 잠겨 석양의 빛을 받아 붉은 색조가 어린 대리석비의 글발을 더듬는다.

...  
모주 제작일동  
무심히 읽히지 않는 글발에 눈길을 박은채 나는 자기 가슴에 밀물처럼 차드는 시대적사명감, 모주로서의 의무를 무겁게 느낀다.

진정으로 선생님의 흔적을 지켜주어야 할 모주라면 분분이나 다름은 상봉우에 꽃다발을 드리는것으로 자기

### 추당섬의 꽃

공전이며 우리는 장수의 노한 칼을 뽑아들고 너를 멈춰세우리라

분열된 민족의 비통한 울분을 세상을 향해 뽐내듯 터뜨리던 그 시인도 이제는

이 나라에 태를 묻고 이 나라의 풍기와 물을 마시며 자라난 이 나라의 씨가 분명하다면 이네들의 꿈과 환을 욕되게 하는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분열의 환을 풀지 못한채 쓰러진 우리의 마음착한 련인들의 이름

그렇게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도 고결한 인성을 짓밟는 민족의 역도들은 이 땅의 족보에서, 아니 지구의 지경밖으로 영원히 추방하라.

반세기기를 넘어오며 순간순간을 분열의 한, 통일의 희망으로 애간장을 태운 우리의 고결한 련인들을 살아서 만나게 하자!!!

나는 저도모르게 쇠물처럼 끓어오르는 빈애에 잠겨 석양의 빛을 받아 붉은 색조가 어린 대리석비의 글발을 더듬는다.

...  
모주 제작일동  
무심히 읽히지 않는 글발에 눈길을 박은채 나는 자기 가슴에 밀물처럼 차드는 시대적사명감, 모주로서의 의무를 무겁게 느낀다.

진정으로 선생님의 흔적을 지켜주어야 할 모주라면 분분이나 다름은 상봉우에 꽃다발을 드리는것으로 자기